

4면



철강 생산 세계 10위 허와 실



편저 바다 위에 거대 신도시가 태어난다

베트남 역사상 가장 야심찬 부동산 프로젝트가 바다 위에서 시작됐다.

2025년 4월 19일, 호치민시 편저(Cần Giộc) 해안. 베트남 최대 재벌 팜 낫 브엉 빈그룹 회장이 삼을 들었다. Vinhomes Green Paradise, 2,870ha의 바다를 메워 만드는 신도시 ...

9면



커피 왕국 30년, 쩡위엔(Trung Nguyên)

완전 해부: 창업 · 이혼 전쟁 · 글로벌 도약

1996년, 베트남 커피의 수도 닥락(Đắk Lắk)의 한 청년이 자전거로 원두를 팔기 시작했다.

당 레 응우옌 부(Đặng Lê Nguyên Vũ). 당시 의대생이었던 그는 학업을 접고 커피에 모든 것을 걸었다. ...

12면



우기에만 열리는 수상 밀림의 마법

짜수 카주푸트 숲(Rừng Tràm Trà Sư)

여기에는 비가 내려야 문이 열린다.

메콩 델타 서쪽 끝, 안장(An Giang)성. 짜수(Trà Sư) 카주푸트 숲은 850ha 규모의 수상 밀림이다. 건기에는 평범한 숲이다. 그러나 6월, ...

16면



신한은행

사업자님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신한은행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맥시마이즈 계좌 이용시
계좌 잔액에 최대 연 3%
이자 적용

사업자 전용 카드 사용 시
카드이용 금액의 최대 5% 적립 및
POS 매출의 최대 0.5% 적립

타행 POS 단말기, 신한
전환 시 기존 대비 낮은
MDR 제공



문의 : 신한은행 영업점 또는 1900-4478
홈페이지 : www.shinhan.com.vn

신한금융그룹 in Vietnam

Shinhan Bank Shinhan Finance Shinhan Securities Shinhan Life Shinhan DS

쌀에서 비타민으로 - 일본 · 베트남 50년의 진화

반도체 · 희토류 · AI 3대 협력축이 열어가게 새로운 50년

1976년 수교 · 누적 ODA 2위 · FDI 누계 \$70B · 교역 \$210B → \$250B 목표 · 2026.5.2 타카이치 방문 6개 협정 · Q1 2026 신규 FDI -75% 충격 · 희토류 세계 2위 4,400만 톤 · 삼성 반도체와 영역 겹침 분석

타카이치 총리의 5월 2일 하노이 연설에는 이 50년의 전환점이 담겨 있다.

"쌀은 산업의 쌀이다. 이제 비타민으로 나아가자 - 바로 희토류다." 일본 총리의 이 발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제조업 하청 기지로서의 베트남에서 희토류·반도체·AI의 핵심 공급망 파트너로서의 베트남으로 - 일본이 베트남 투자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이다. 수교 50주년이 그 전환의 공식 출발점이 됐다.

베트남-일본 2025 교역액	일본 베트남 누적 FDI	Q1 2026 신규 FDI 충격
\$210억 \$250억 목표 · +12.3% Q1 2026	\$70B+ 2위 FDI 공여국 · ODA 누계 최다	-75% 전년 동기 \$9.2억 → \$2.3억 급감



▶ 일본의 베트남 투자 50년 - 3단계 진화

시기 · 단계	투자 성격	주요 내용 · 대표 기업 · 프로젝트
1976~1999년 수교 · 인프라	ODA 중심 · 사회 인프라 구축	노이바이 공항 · 닌빈 화력발전 · 하노이-하이퐁 국도. 베트남 재건의 물적 토대를 일본 ODA가 닦음
2000~2015년 제조업 집적기	하노이 · 하이퐁 · 호치민 공단	캐논 · 혼다 · 야마하 · 파나소닉 · 덴소. 전자 · 자동차부품 · 오토바이. 일본식 품질관리(QC) 이식
2016~2024년 고도화 · 서비스기	고부가가치 · 물류 · 금융	르네사스(반도체) · 키오시아(NAND) · 호야(광학유리). 물류(사가와 · 야마토) · 금융(SMBC · 미즈호)
2025~2026년 전략적 파트너기	경제안보 · 기술주권	반도체 공동연구 · 희토류 공급망 · AI 협력. 단순 투자에서 국가 전략 파트너십으로 격상

① 2026년 5월 2일 - 50주년이 만들어낸 새 협력 설계도

2026년 5월 1~3일, 타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베트남을 방문했다. 이 방문에서 양국은 6개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경제안보를 "새로운 최우선 협력 분야"로 공식 지정했다.

6개 협정의 내용은 기후회복력·저탄소성장·디지털전환·우주데이터 활용이다. 그러나 실질 핵심은 별도 합의문에 담겼다 - 반도체·AI·희토류·에너지 4대 분야의 공급망 강화다. 양국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전략을 공유하며 남중국해 긴장 고조 상황에서 안보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Q1 2026 일본의 베트남 신규 FDI가 전년 대비 -75%로 급감한 것은 이 방문의 배경 중 하나다. 닛케이는 "투자 금액보다 투자 방향이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기업들이 전통 제조업 투자를 줄이고 고기술 전략 분야로 선택·집중하는 "질적 전환"이 진행 중이다.

② 3대 협력축 심층 분석 - 반도체 · 희토류 · AI

타카이치 총리가 연설에서 직접 명명한 3대 새 협력축의 실체를 해부한다.

【반도체】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ST)는 "NEXUS" 프레임워크 아래 일본-베트남 반도체 국제 공동연구 2차 공모를 진행 중이다. 설계(첨단 로직/메모리·저전력 최적화·대형 파워반도체), 소재(첨단 패키징 소재·GX 파워반도체 소재), 지원기술(EDA·평가분석), 제조(공정 기술) 4개 분야가 공모 대상이다. 르네사스는 하노이 기술연구소를 확대하고 있으며 키오시아(NAND 플래시)는 박닌 생산라인 증설을 결정했다. 베트남-일본대학(VJU)은 반도체 인재 육성 허브로 지정됐다.

【희토류】 베트남은 희토류 매장량 세계 2위(4,400만 톤·중국 다음)다. 그러나 가공 능력은 사실상 없다. 타카이치 총리는 연설에서 희토류를 "산업의 비타민"이라 명명하며 "일본-베트남 민관 공동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JOGMEC(일본광물자원기구)·스미토모·도요타가 베트남 희토류 탐사·정제·가공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POWER Asia(아시아 에너지·자원 공급망 회복력 파트너십) 프레임워크가 이 협력의 공식 창구다.

【AI】 하노이 공과대학과 토레이그룹이 AI 연구·기술이전·인재 개발 포괄 협력을 맺었다. FPT와 르스타코퍼레이션은 반도체+AI 아태 시장 공동 개발을 추진 중이다. 베트남 국가혁신센터(NIC)와 히로시마대학은 반도체 인재 양성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③ 희토류 협력 - 한국의 전략적 공백과 대응 방안

일본이 베트남 희토류를 "산업의 비타민"으로 명명하며 국가 전략 차원의 공급망 협력에 나서고 있는 동안 한국은 이 분야에서 구체적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한국의 가장 심각한 전략적 공백이다.

현실을 보면: 베트남 희토류 4,400만 톤 중 라이 짜우성·엔 바이성 일대에 품질 좋은 광상이 집중돼 있다. 그러나 정제·가공 인프라가 없어 원광석 수출에 그치고 있다. 한국 배터리·반도체·방산 산업은 희토류를 중국에서 95% 이상 수입한다. 이 의존도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 경로가 베트남 희토류 협력이다. 한국의 대응 전략은 세 축으로 구성돼야 한다. 첫째, 포스코인터내셔널·LX인터내셔널 같은 종합상사가 베트남 희토류 광산 지분 참여를 서둘러야 한다. 둘째, 한국 화학·소재 기업이 베트남 현지 희토류 분리·정제 공장에 투자하면 "원산지 베트남" 희토류로 EU CBAM 규제도 피할 수 있다. 셋째, 산업부가 베트남 자원부와 희토류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를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 일본이 선점하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

④ 반도체 영역 분석 - 삼성과 일본의 베트남 반도체 전략 비교

같은 베트남, 같은 반도체. 그러나 삼성과 일본 기업의 전략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겹치는 영역과 비어있는 영역이 보인다.

삼성의 베트남 반도체 전략은 "대규모 제조 집적"이다. 타이응우옌·박닌 삼성 단지 총투자 \$23B 이상. 스마트폰·메모리 반도체 조립·테스트·패키징(ATMP)이 핵심이다. 삼성이 베트남에서 하는 것은 "만드는 것(Manufacturing)"이다.

일본의 베트남 반도체 전략은 "연구·설계·소재"다. JST 공동연구 공모 분야가 증명한다 - 설계, 소재, EDA, 제조 공정 기술. 르네사스·키오시아·호야는 삼성과 다른 층위에서 움직인다. 삼성이 메모리 ATMP를 하는 동안 르네사스는 차량용 MCU 설계, 키오시아는 NAND 원천 기술, 호야는 반도체 포토마스크 소재를 다룬다. 표면적으로 겹쳐 보이지만 레이어가 다른 것이다.

그러나 갈등 지점도 있다. EDA(전자 설계 자동화)와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는 일본과 삼성이 같은 베트남 인재 풀을 두고 경쟁한다. 베트남 반도체 인재는 아직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한국의 대응 전략: 삼성이 ATMP를 하는 동안 한국 중소·중견 반도체 소재·장비 기업이 일본과 차별화된 틈새인 "패키징 소재·칩온웨이퍼 공정"에서 FPT·빈그룹AI 등 베트남 파트너와 협력해 독자적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 편집부 종합 평가-50년의 전환점에서 한국이 해야 할 두 가지

일본은 베트남에서 "제조 하청"에서 "기 틈새를 선점하라.

술 공동체"로 이동했다. 한국은 어디에 있는가.

① 희토류: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한다.

일본의 JOGMEC이 선점하기 전에 포스코인터·LX인터가 뛰어라.

② 반도체 소재·EDA: 삼성의 ATMP와 겹치지 않는 "설계·소재·첨단 패키징"

③ Q1 2026 일본 FDI -75%의 진실: 양이 줄었지만 질이 올라갔다. 전략적 선택·집중의 신호다.

④ 한국의 경쟁 우위: 삼성 \$23B 제조 거점 + 현지 네트워크. 이것을 플랫폼으로 소재·인재 협력 연결.

철강 생산 세계 10위 허와 실

베트남 철강, 이란 폭격의 반사이익인가 진짜 산업 굴기인가

2026년 4월 세계 10위 · 이탈리아 추월 · 호아팻 44.7% 독점 · 국산 철광석 0% ·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2026 실비용 · 과잉 생산 경보 · 2029년 목표 2,100만 톤 · 포스코 · 현대제철 협력 가능성



2026년 4월, 세계철강협회(Worldsteel)가 발표한 수치가 베트남을 놀라게 했다.

베트남의 4월 조강 생산량이 210만 톤으로 집계되며 이탈리아를 처음으로 추월해 세계 10위에 진입했다. 2023년 12위(2,000만 톤), 2025년 11위(2,460만 톤)에서 단 2년 만에 세 계단을 뛰어올랐다. 하지만 이 숫자를 냉정하게 해부해야 한다. 10위 진입의 이면에는 구조적 한계와 지정학적 행운이 동시에 존재한다.

2025년 조강 생산	2026년 4월 세계 순위	호아팻 생산 점유율
2,460만 톤 동남아 1위 · 세계 11위	10위 이탈리아 추월 · 역대 최초	44.7% 48개 성 확산. 2025년 1,100만 톤 생산

▶ 2026년 4월 세계 조강 생산 Top 10

국가 · 순위	생산량(추정)	특징
1위 중국	약 9,900만 톤/월	압도적 1위. 세계 생산의 54% 독점
2위 인도	1,280만 톤/월	2030년 중국 추격 목표. 연 +9% 성장
3위 일본	720만 톤/월	성숙 시장. 고부가가치 특수강 강점
4위 미국	700만 톤/월	EAF 비중 높음. 수입 관세 보호주의
5위 러시아	650만 톤/월	전쟁 이후 감소 추세
6위 한국	580만 톤/월	포스코 · 현대제철. 고급강 수출 강국
7위 독일	330만 톤/월	유럽 최대. 그린스틸 전환 가속
8위 브라질	290만 톤/월	철광석 자급. 내수 중심
9위 터키	280만 톤/월	EAF 중심. 건설용 강재 수출
10위 베트남 ★	210만 톤(4월)	이란 추락으로 진입. 호아팻 주도

① 세계 10위의 허 - 이란 폭격이 만든 공식

2026년 4월 베트남의 세계 10위 진입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 이란이 빠져서 생긴 자리에 베트남이 앉았다.

세계철강협회 데이터에 따르면 이란은 2026년 2월까지 세계 10위를 지켰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최대 철강 생산시설인 호제스탄(Khuzestan) 제철소와 모바라케(Mobarakeh) 제강소가 타격을 입으면서 이란의 4월 생산량이 180만 톤으로 추락해 12위로 밀려났다. 베트남은 이 공석을 채웠을 뿐이다. 이탈리아를 "추월"했다고 하지만 이탈리아의 4월 생산량 역시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감소한 결과다. 베트남 철강 생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경쟁자들이 줄어든 것이 10위 진입의 절반쯤 되는 진실이다.

1~4월 누적 850만 톤 생산은 전년 대비 +8.4%로 실질 성장세는 맞다. 그러나 이것이 순수한 산업 경쟁력에서 나온 것인지, 지정학적 변수의 수혜인지를 분리해 읽어야 한다. 이란 제철소가 재건되고 이탈리아 생산이 회복되는 시점에 베트남이 10위를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② 세계 10위의 실 - 진짜로 변한 것들

그러나 냉정한 분석은 한 방향으로만 향하지 않는다. 베트남 철강 산업에서 실질적으로 변한 것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2000년대 초까지 베트남 철강사들은 수입 빌렛(반제품)을 가져다 건설용 철근을 만드는 수준에 머물렀다. 지금은 다르다. 호아팻의 동팡(Dung Quat) 일관 제철소는 고속철도용 레일 강재·타이어 코드 강선·스프링 강·프리스트레스트 강재까지 고기술 특수강을 자체 생산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 건설재 철강사가 아니다. 2025년 생산량 1,100만 톤에서 2026년 1,400만 톤으로 +30% 성장이 예상되는 호아팻의 속도는 지정학적 변수와 무관한 구조적 성장이다. 국내 수요도 진짜다. 하노이 1,153km 메트로, 롱탄 공항, 전국 40개 이상 스마트시티 건설이 2026년 완성 철강 소비를 연 8~10% 끌어올리고 있다. 세계 10위는 행운이 만든 숫자일 수 있지만 베트남 철강이 동남아 최강이라는 사실은 이미 구조적 현실이 됐다.



▶ 호아팟 그룹(Hòa Phát Group) 완전 해부

항목	수치	세부 내용
창립 · 본사	1992년 · 하노이	창업자 쩌딘롱(Trần Đình Long). 철강 외 부동산 · 농업 복합 그룹
2025 매출	\$63.3억	전년 대비 +13%. 순이익 \$6.2억(+29%). 동남아 최대 철강 기업
2025 생산	1,060만 톤+	+31% YoY. 전국 생산의 44.7% 독점. HRC · 건설재 · 선재 · 특수강
2026 목표	1,400만 톤	+30% 목표. 동광 2단계 플러그동 시 연산 1,200만 톤 단지 완성
2029 비전	2,100만 톤	총 연산 능력 목표. 동남아 1위 · 세계 Top 10 안정 진입
주요 제품	전 제품 라인업	HRC · 건설재 · 선재 · 고속철 레일 · 타이어코드 · 스프링강 · 엔지니어링강
수출 비중	31% (2024)	ASEAN · EU 중심. 반덤핑 소송 대응 필요. EU CBAM 2026 실비용 적용
최대 리스크	EU CBAM + 탄소	BF-BOF 방식 탄소집약적. 그린스틸 전환 전략 미완성

③ 호아팟의 구조적 한계 - 3가지 아킬레스건

호아팟의 성장은 눈부시다. 그러나 세 가지 구조적 취약점이 미래를 가린다.

첫째, 원료 100% 수입 의존이다. 베트남에는 철강 생산에 쓸 만한 철광석 매장량이 거의 없다. 호아팟은 철광석을 호주·브라질에서, 코킹 석탄을 호주·인도네시아에서 전량 수입한다. 2024년 수익의 31%가 수출에서 나왔는데 원료 수입 비용이 급등하거나 물류가 막히면 수익 구조 전체가 흔들린다. 이란전쟁 이후 해상 물류 리스크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이 취약점은 더 커졌다.

둘째, EU CBAM 직격탄이다. 2026년 1월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실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호아팟의 주력 생산 방식인 고로-전로(BF-BOF)는 탄소 집약도가 극히 높다. Transition Asia는 "기술 전환 없이는 베트남 철강이 유럽 고급 시장으로의 티켓을 잃는다"고 경고했다. 호아팟이 2024년 매출에서 유럽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 않다.

셋째, 과잉 생산 경보다. 동남아철강협회(SEAISI)는 ASEAN-6 조강 생산 능력이 2022년 7,800만 톤에서 2030년 1억8,250만 톤으로 두 배 이상 폭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요 성장을 공급 확장이 훨씬 앞서는 구조다. Transition Asia는 베트남이 "ASEAN에서 가장 심각한 철강 과잉 생산 케이스"가 될 수 있다고 경고

했다. 호아팟이 2029년 2,100만 톤을 목표로 계속 증설하는 동안 중국산 저가 철강이 글로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④ 한국 기업의 기회 -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답이다

베트남 철강 10위 진입이 한국 철강 기업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우리 고객이 커졌다"와 "새로운 경쟁자가 생겼다" 두 가지 해석이 공존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제3의 시각이 있다 - "파트너십의 기회"다.

첫 번째 협력 영역은 그린스틸 전환 기술이다.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HyREX) 기술 개발에 앞서고 있으며 2030년 상용화 시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호아팟이 직면한 CBAM 문제의 해법이 바로 여기에 있다. 포스코의 수소환원·전기로(EAF) 전환 노하우와 호아팟의 생산 규모가 결합하면 "동남아 최초 그린스틸 생산 기지" 구축이 가능해진다. 두 번째 협력 영역은 고부가가치 특수강 공동 개발이다. 베트남 고속철도(2030년대 착공 예정) 건설에 필요한 레일 강재, 반도체·전기차 분야에 필요한 전기강판은 호아팟이 아직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영역이다. 포스코·현대제철의 기술 이전+합작 생산 모델이 유효하다. 세 번째 기회는 원료 공급망 참여다. 호아팟의 철광석 100% 수입 구조에서 한국 종합상사(포스코인터내셔널·LX인터내셔널)가 원료 소싱 파트너로 참여하는 모델이다. 네 번째는 내화물·산업 소재·설비 공급이다. 연산 1,400만→2,100만 톤 증설 과정에서 필요한 내화 벽돌·냉각 설비·환경 장치·계측 시스템은 한국 중견 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급망 틈새다.

⑤ 호아팟 미래 비전 - 2029년 2,100만 톤, 그 이후

호아팟의 공식 장기 목표는 "2029년 조강 생산 능력 2,100만 톤"이다. 이 숫자가 달성되면 호아팟은 세계 Top 20 철강사 수준이 된다. 그러나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호아팟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전략적 과제들이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탄소중립 로드맵의 구체화다. 현재 BF-BOF 방식에서 EAF·수소환원으로의 전환 계획이 호아팟에게는 아직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순헨 그룹(Xuan Thien Group)이 DRI+EAF 방식의 친환경 제철소에 \$40억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는데, 경쟁사보다 늦으면 안 된다. CBAM이 2026년 실비용으로 전환된 지금 탄소 비용 내재화 없이는 유럽 수출 전략이 붕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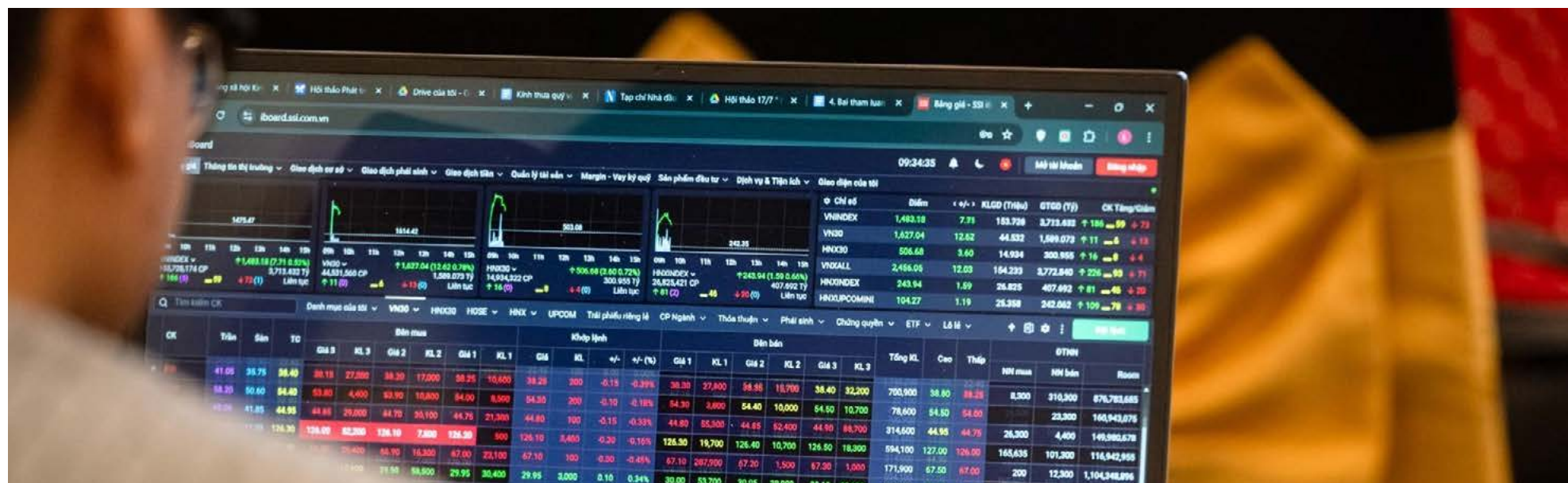
두 번째 과제는 원료 지역 다변화다. 호주·브라질 의존에서 벗어나 아프리카·중앙아시아 철광석으로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ASEAN 수출 네트워크 구축이다. 과잉 생산이 불가피하다면 ASEAN 건설 붐(인도네시아·필리핀·말레이시아)을 새 판로로 확보해야 한다. "동남아 제철소에서 동남아 건설 붐에 공급한다"는 전략이 호아팟의 가장 현실적인 성장 방정식이다.

[출처: World Steel Association (Worldsteel) · VietnamNet · Vietnam.vn · Vietnam Investment Review · VALO Vietnam · Transition Asia · Fastmarkets · SEAISI · VIR (2025~2026.05.31)]

반등은 왔지만 금리가 올랐다

VN-Index 회복 · 예금금리 7% · 국채 수익률 3년 최고 · 기업채권 13.5%

VN-Index 1,896p 외국인 순매수 복귀 · 예금금리 7%+ 돌파 · 주담대 12~14% · 국채 10년물 4.35% 3년 최고 · 부동산 기업채권 13.5% 최고 · 신용증가율 15% 목표 · Maybank IB 연말 목표 2,000p



이번 주 베트남 머니마켓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다 "회복은 맞지만 비용이 올랐다."

VN-Index가 5.7% 조정 후 외국인 순매수 복귀와 함께 1,896p까지 반등했다. 시장 복원력이 증명됐다. 그런데 같은 시간, 예금금리는 7%를 돌파하고 주담대대출은 12~14%까지 올랐으며 국채 수익률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식은 오르는데 금리도 오르는 이 역설이 지금 베트남 금융 시스템에서 벌어지고 있다.

VN-Index 주간 반등	예금금리 최고 수준	국채 10년물 수익률
1,896p 외국인 순매수 복귀 • +0.98%	7%+ 중소은행 중심, BIDV·비엠티도 인상	4.35% 3년 만의 최고 • +127bp 전년대비

다. 조정은 끝났을 가능성이 높지만 FTSE 편입(9월 21일)까지 3개월 반-이 기간 외국인 사전 매집 규모가 하반기 랠리의 강도를 결정할 것이다.

② 예금금리 7% 돌파 — "금리의 역설"이 시작됐다

정책금리는 4.5%로 묶여 있는데 시중 예금금리가 7%를 돌파했다. 이 3%포인트 괴리가 이번 주 베트남 금융 시스템의 가장 뜨거운 이슈다.

2025년 신용성장률 16.56%가 예금 증가율 14.1%를 크게 앞서면서 "대출>예금" 불균형이 발생했다. 이 갭을 메우기 위해 BIDV·비엠티인방까지 대형 국영은행이 금리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뱅크증권은 2026년 상반기 예금금리가 30~50bp 추가 상승하고 하반기 40~50bp 더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담대대출 변동금리가 12~14%까지 오르면서 하노이 70㎡ 아파트(30억~40억 동)를 구매하려면 20~25년 상환이 필요한 구조다. "집 사기 어려운 나라"라는 경고가 커지고 있다. 사회주택 우대금리(시장 대비 -1%p)가 완충 역할을 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

③ 국채 3년 최고 + 기업채권 13.5% — 채권시장의 新국면

베트남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4.35%로 2023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127bp 상승이다. "채권 시장이 장기 금리 상승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구조적 신호다.

국채 수익률 상승은 세 요인이 겹쳤다. 3월 물가상승률 4.65%로 SBV 목표 초과, 이란전쟁 이후 에너지 비용 구조적 상승, 정부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다. VBMA는 6월 3일 국채 경매를 진행했고 베캄맥스(BCM)가 한 달 새 1조5,000억 동을 조달했다. 부동산 기업들이 13.5%까지 금리를 올려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2022년 채권 위기 이후 처음 보는 수준이다. "고금리 채권 수익"과 "부도 리스크" 사이에서 투자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 편집부 평가 - 이번 주는 "회복"과 "부담"이 동시에 확인된 주다

주식은 반등, 예금금리 7%, 국채 3년 최고, 부동산 채권 13.5% - 방향이 엇갈리고 있다.

- ① VN-Index: 반등은 맞다. 2,000p는 FTSE 편입 후 하반기. 지금은 대형주 분할 매집 구간.
- ② 예금금리 7%+: 은행 정기예금이 "안전 수익"으로 부상. 주식 vs 예금 선택 고민 현실화.
- ③ 국채 4.35%: 장기 금리 상승 구조 진입. 채권 투자자는 단기물 중심 포지셔닝 유효.
- ④ 부동산 기업채권 13.5%: 고금리 유혹이지만 2022년 위기 재현 경계. 신용 평가 필수.
- ⑤ 한국 투자자: 은행주(VN-Index 40% 비중)·FTSE 수혜 대형주 중심 하반기 전략 유효.

[출처: VietNam News · Trading Economics · VBMA · VietnamPlus · Maybank IB · SSI Research · Global Property Guide (2026.01~06.05)]

▶ 베트남 주요 금리 현황 (2026년 6월 5일 기준)

구분	금리 수준	배경 및 의미
SBV 기준금리	4.50%	2023년 6월 이후 동결. 정부 "인하" 압박에도 물가 우려로 불변
예금금리 (중소은행)	7.0~7.5%	2025말 대비 +50~100bp. 신용>예금 격차 해소 위해 수신 경쟁 격화
주택담보대출 (변동)	12~14%	우대 기간 종료 후 급등. 70㎡ 하노이 아파트 구매 20~25년 소요
인터넷은행 금리	7.6%	기준금리 대비 +3.1%p 괴리 지속. 유동성 긴장 신호
국채 10년물 수익률	4.35%	3년 최고. 전년 대비 +127bp. 채권 발행 비용 급증
부동산 기업채권	13.5%	카이호안랜드 최고치. 2022년 채권 위기 이후 최고 수준
신용성장률 목표	15%	2026 SBV 목표. 2025년 실적 16.56% → 조정 압력 존재

① VN-Index 1,896p 반등 - 외국인이 돌아왔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5.7% 급조정 이후 VN-Index가 이번 주 1,896p로 반등했다. 외국인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순매수로 돌아섰다는 점이 핵심 연료다.

은행주가 VN-Index의 40%를 차지하는 구조에서 비엠티뱅크·BIDV 등 4대 국영은행이 자산·예금·대출에서 동반 증가세를 보이며 "차입 수요 반등"을 증명했다. Maybank IB는 연말 목표 2,000p를 유지했다. 기업 순이익 성장률 18~20%와 FTSE 편입 후 외국인 유입이 하반기 동력이다. SSI Research는 "VN-Index가 4% 이상 조정 후 1~3개월 반등 확률이 70~75%"라고 분석했



사파마 힐링캠프
SAFAMA HEALING CAMP

14세기부터 19세기 명화
숲속의 야외오픈 프로젝트

모나리자
에서
르누아르
까지

2026. February. 14
2026. August. 14

세계명화대전

서양 미술사 600년 레플리카전을 엿니다

베트남 1,000만 Gen Z의 지갑이 열린다

10~20대가 가장 열광하는 5대 핫 아이템과 소비 코드

뷰티 시장 \$25억→\$32억(2030) • 로컬 스트리트웨어 DirtyCoins • Levents • Ananas • 버블티 시장 연평균 성장 9.8% • SNS 구매 결정 51% •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구매 영향 55% • K-뷰티 • K-웰니스 최강 흡입력

베트남 1,000만 Gen Z(1997~2012년생)와 700만 밀레니얼(1981~1996년생)이 동남아 최고 속도의 소비 군단으로 부상했다.

도시화율 40%, 중위 연령 31세, 스마트폰 보급률 74%. 이 세 숫자가 베트남 Gen Z 소비 시장의 구조를 설명한다. 한 달 용돈 200만~500만 동으로 최대한 "힙하게" 살려는 이들이 틱톡으로 트렌드를 발견하고, 쇼피로 구매하며, 인스타그램으로 과시한다. 이 소비 행위가 시장의 판을 바꾸고 있다.

Gen Z 구매 채널	뷰티 시장 2030 목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SNS 51% 틱톡샵 바이럴→즉시구매 구조	\$32억 \$25억(2024) →연평균성장 4.2%	55% 구매 결정 영향. 팔로워 1~10만



④ 웰니스 & 멘탈케어 제품

#자기계발 #웰니스 #마음챙김 | 웰니스 시장 연 +18% • 헬스케어 앱 MAU 급증
베트남 Gen Z가 "정신 건강"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불과 3~4년 전까지 금기시되던 주제가 틱톡 인플루언서를 통해 "힙한 주제"가 됐다.

수면 개선 제품·마그네슘 보충제·아로마테라피·마음챙김 저널·명상 앱이 Gen Z 구매 목록에 올랐다. "번아웃"이라는 단어가 20대 초반 직장인 사이에서 일상어가 됐다. 헬스·피트니스 앱 MAU가 2025년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홈 피트니스 - 요가 매트·저항 밴드·폼롤러가 쇼피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K-웰니스 - 홍삼·흑마늘·콜라겐 젤리가 "한국산 건강 식품"으로 급속도로 침투하고 있다. "한국 사람들이 먹는다더라"는 SNS 입소문이 구매를 이끈다. 이 카테고리는 빠르게 성장하면서 아직 강자가 없는 "블루오션"이다.

한국 기업 접근 포인트 홍삼 젤리·콜라겐 스틱·마그네슘 젤리 등 "맛있는 건강식품" 출시. 베트남 K-웰니스 인플루언서와 협업. CJ·아모레퍼시픽 채널 활용.

⑤ 개인화 테크 & 가성비 전자기기

#에어팟 #갤럭시버즈 #가성비폰 | 전자기기 시장 연평균 성장 8%+ • 스마트폰 보급률 74%

베트남 Gen Z에게 스마트폰은 신체 일부다. 그리고 "나를 표현하는 스마트폰 주변기기"가 새로운 소비 전쟁터다.

무선 이어폰이 가장 뜨겁다. 삼성 갤럭시 버즈·샤오미 버즈·JBL 이어폰이 10~20대 생일 선물 1위 자리를 두고 경쟁한다. 스마트폰 케이스는 "패션 아이템"으로 격상됐다. 투명 케이스에 꽃·스티커를 넣는 DIY 케이스가 틱톡에서 바이럴되면서 케이스 관련 소비가 폭증했다. "가성비 삼성"이 강세다. 베트남 Gen Z는 아이폰을 선택하지만 실제로는 갤럭시 A·M 시리즈(20~30만 원대)를 선택한다. 삼성이 베트남 Gen Z 신뢰도 1위 스마트폰 브랜드를 유지하는 이유다. AI 기능 탑재 스마트폰 - 실시간 번역·배경 지우기·AI 사진 편집이 "구매를 결정하는 기능"으로 부상했다.

한국 기업 접근 포인트 갤럭시 A·M 시리즈 Gen Z 타겟 마케팅 강화. 케이스·무선 이어폰 K-디자인 콜라보. AI 기능을 틱톡 숏폼으로 시연하는 마케팅 전략.

▶ 한국 기업 베트남 Gen Z 시장 진입을 위한 핵심 파트너 목록

파트너 유형	주요 플랫폼/기업	협력 방식 및 기대 효과
이커머스 플랫폼	Shopee Vietnam • TikTok Shop • Lazada • Tiki	라이브커머스 파트너십. K-브랜드 공식 스토어 입점. 플래시딜·한정판 드롭 진행
로컬 미디어 • 인플루언서	YouNet Media • Revu • Hiip • iKonMedia	마이크로 인플루언서(1~10만 팔로워) 매칭 플랫폼. Gen Z 신뢰도 높은 채널
로컬 패션 브랜드	Ananas • Levents • DirtyCoins • TSUN	한국 소재·디자인+베트남 로컬 브랜드 협업 컬렉션. K-로컬 크로스오버
유통·오프라인	WinMart • LOTTE Mart • Circle K • GS25	롯데마트·GS25 베트남 매장 내 K-웰니스·K-뷰티 전용 코너 확대
클린뷰티 파트너	Cocoon Vietnam • Hasaki • Guardian	코쿤과 K-성분 협업. 하사키·가디언 유통망으로 K-뷰티 접근성 확대
금융·결제	MoMo • ZaloPay • VNPay • VietQR	현지 페이먼트 연동 필수. MoMo 전자결제 사용자 3,100만 명 활용

[출처: YouNet Media • B-Company • Cimigo Vietnam • Anvui Travel • Teeworld • Statista • GrowthHQ • YouNet E-Commerce 2025 (2025~2026.06)]

① K-뷰티 & 클린뷰티 스킨케어

#스킨케어루틴 #클린뷰티 #성분분석 | 뷰티·퍼스널케어 \$25억 (2024)

베트남 Gen Z는 피부에 진심이다. 하루 3~5단계 스킨케어 루틴이 10대 여학생 사이에서도 표준이 됐다.

틱톡에서 "성분 분석" 영상이 수백만 뷰를 기록하면서 "화학 성분 NO, 천연 성분 YES"를 외치는 클린뷰티 세대가 탄생했다. 수분 크림·SPF 선크림·나이아신아마이드 세럼이 베트남 Gen Z의 3대 필수 스킨케어 아이템이다. 베트남 로컬 브랜드 코쿤(Cocoon)이 닥락 커피·홍연 강황 등 베트남 천연 성분을 내세워 "클린+로컬" 포지셔닝으로 폭발적 성장 중이다. K-뷰티는 이 시장의 최강 수혜자다. 이니스프리·라네즈·스킨푸드·토니모리의 베트남 매출이 2025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국 인플루언서가 소개한 제품은 베트남 TikTok Shop에서 72시간 내 완판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K-뷰티는 좋은데 너무 비싸다"는 반응이 있어 가성비 라인에 대한 수요도 높다.

한국 기업 접근 포인트 TikTok Shop·Shopee 라이브 커머스에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기용. 세럼·선크림 "성분 투명 라인" 출시. 베트남 코쿤(Cocoon)과 K-성분 협업 검토.

② 로컬 스트리트웨어 & 스니커

#로컬브랜드 #스트리트웨어 #스니커컬처 | 패션 온라인 시장 연평균 성장 12%+

"수입 브랜드보다 우리 것이 더 멋있다" 베트남 Gen Z의 로컬 브랜드 자부심이 전례 없이 높아졌다.

2026년 여름 베트남 Gen Z 패션 씬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들이 있다. DirtyCoins(스트리트웨어·그래피티 감성), Levents(미니멀 모던), TSUN(아트 콜라보), Hades Studio(어반 스트리트), Ananas(로컬 스니커)가 5대 로컬 브랜드다. Ananas 스니커는 나이키·아디다스 카피가 아닌 "베트남 정체성을 담은 디자인"으로 포래에게 "갖고 싶은 운동화" 1위로 꼽히고 있다. 이 트렌드의 핵심은 "자기 표현(Self-Expression)"이다. Gen Z는 브랜드 로고보다 "이 옷을 입은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한정판·드롭 마케팅·아티스트 콜라보가 구매 동기를 자극한다. 스니커 리셀 시장도 생겨났다. 한국 브랜드 MLB·뉴발란스가 이 시장에서 의외로 강세다.

한국 기업 접근 포인트 MLB·뉴발란스·커버넌트 이미 인기 확인됨. Gen Z 베트남 로컬 디자이너와 협업 컬렉션 출시. 한정 드롭 방식으로 희소성 강조 마케팅.

③ 버블티 & 프리미엄 음료

#버블티 #트렌디카페 #사진맛집 | 버블티 시장 연평균 성장 9.8% • \$6억+(2025)

버블티는 베트남 Gen Z의 "기본 음료"가 됐다. 수업 후 친구들과 들르는 버블티 가게가 PC방·노래방 자리를 대체했다.

공차(Gong Cha)·더 알리(The Alley)·타이거슈가·올레아·포포밀크티 등 다국적 브랜드와 베트남 로컬 버블티 체인이 시장을 양분한다. 단순한 버블티를 넘어 "인스타그램용 비주얼 음료"가 핵심 경쟁력이 됐다. 색깔·레이어·토포핑의 시각적 아름다움이 구매 결정 1순위다. "음료 한 잔+샷카 한 장"이 Gen Z의 소비 의식(儀式)이다. 프리미엄화도 진행 중이다. 1만5,000~3만5,000동(\$0.6~1.4)이었던 시장이 5만~9만 동(\$2~3.5)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상향됐다. 공차·더 알리 등 한국 관련 브랜드가 이미 강세다. "건강한 버블티" - 저당·오트밀크·천연 과일 토포핑이 다음 트렌드다.

한국 기업 접근 포인트 공차 프리미엄 라인 강화. 제주 감귤·한국 팥·인삼 토포핑 K-버블티 개발. 오트밀크·저당 라인으로 "헬시 버블티" 시장 선점.

껌저 바다 위에 거대 신도시가 태어난다

동남아 최대 해안 신도시, 빈그룹 \$100억달러 껌저 Vinhomes Green Paradise

2,870ha 매립 신도시 · 총투자 \$10B · 2025년 4월 착공 · VinSpeed 고속철 \$3.89B · 호치민~껌저 13~20분 · 2028년 개통 · 껌저-붕따우 해저터널 \$3.96B · 23만 명 거주 · 108층 타워 · 동남아 최초 ESG++ 해안 도시

베트남 역사상 가장 야심찬 부동산 프로젝트가 바다 위에서 시작됐다.

2025년 4월 19일, 호치민시 껌저(Cần Giò) 해안. 베트남 최대 재벌 팜 낫브엉 빈 그룹 회장이 삼을 들었다. Vinhomes Green Paradise, 2,870ha의 바다를 메워 만드는 신도시, 총투자 \$10B(한화 약 13조 5,000억 원).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해안 매립 도시 개발이 공식 시작된 순간이다. 그리고 이 도시를 살아있게 만드는 혈관이 될 호치민~껌저 고속철(VinSpeed)도 이미 착공됐다.

신도시 총투자	신도시 개발 면적	고속철 (VinSpeed) 투자
\$10B 282,000억 동 · 베트남 역대 최대	2,870ha 매립지 1,357ha 포함 · 23만 명	\$3.89B 54km · 시속 350km · 2028 개통



총연장 54km, 시속 최대 350km의 이 노선은 베트남 역사상 첫 번째 민간 자본 고속철도다. 총투자 \$3.89B(102,430억 동). 2025년 5월 착공된 VinSpeed는 팜 브엉이 51%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025년 12월 19일 착공됐으며 Q4 2025~Q3 2027 건설·장비 설치, 2027년 말 시험 운행, 2028년 1분기 상업 운행 개시가 목표다. 운행 기간은 투자 승인일로부터 70년이다. 단, 현실적 과제가 있다. HCMC가 2026년 10월까지 토지 인도를 완료하지 못하면 VinSpeed가 토지 보상 비용을 선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 붙어있다. 토지 인도 지연이 공사 일정 전체를 미룰 수 있는 변수다.

▶ 껌저 신도시 연계 4대 교통 인프라 현황

프로젝트	투자액	완공	핵심 내용
VinSpeed 고속철 벤탄~껌저	\$3.89B (102,430억 동)	2028년 Q1 상업 운행	54km · 시속 350km · 13~20분 단축 · 2025.12.19 착공 · 베트남 첫 민자 고속철
껌저 대교 (Can Gio Bridge)	\$120M (3,000억 동)	2028년 완공	차량 이동 45~60분으로 단축 · 껌저→호치민 직결
껌저-붕따우 해저터널+교량	\$3.96B (104,410억 동)	2029년 목표	14km · 해저터널 3.1km 포함 · 2026년 착공 예정 · BT 방식
룽삭 인터체인지 고속도로 연결	\$120M (3,000억 동)	2028년 완공	벤룩-룽삭 고속도로 연결 · 룽삭 신공항 직접 접속

▶ VinSpeed 벤탄~껌저 고속철 공사 타임라인

2025년 5월	VinSpeed 법인 설립	팜 낫브엉 지분 51%. 두 아들 각 0.5%. 벤탄-껌저 노선 투자자로 선정
2025년 12월	고속철 착공	2025.12.19 착공식. Q4 2025~Q3 2027 건설·장비 설치 기간
2026년 10월	토지 인도 완료 목표	HCMC, VinSpeed에 부지 토지 인도 10월 완료 목표 (2026.03 발표)
2027년 말	시험 운행 시작	2027년 Q4 시험 운행. 전 구간 안전 테스트 및 조정
2028년 Q1	상업 운행 개시	호치민 벤탄~껌저 신도시 54km 공식 개통. 13~20분 운행

① Vinhomes Green Paradise - 동남아 최대 해안 매립 신도시의 실체

껌저는 호치민시의 유일한 해안 지역이다. 맹그로브 생태숲으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 땅이 지금 베트남 역사 최대 개발 프로젝트의 무대가 됐다.

빈그룹은 껌저 투어리즘 어반 주식회사(Can Gio Tourism Urban Joint Stock Company)를 통해 Vinhomes Green Paradise를 개발하고 있다. 2,870ha 중 1,357ha가 바다를 매립한 땅이다. 나머지는 기존 토지를 활용한다. 2025년 4월 19일 착공 이후 설 연휴에도 공사를 멈추지 않았다. 특수 선박·이송 스테이션을 24시간 가동하며 해상 매립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의 설계 철학은 "ESG++"다 - 전체 면적의 70%를 녹지·수공간으로 배치하고, 재생에너지를 전력원으로 활용하며, AI-IoT-빅데이터로 도시를 운영하는 "세계 최초 완전 생태 스마트 해안 도시"를 표방한다. 108층 상징 타워, 빈컴몰·빈맥 종합병원·빈스쿨국제학교·빈원더스·사파리·마리나·오페라하우스·골프장이 포함된다. 2026년 4월 기준 매립 공사가 가시적으로 진척되고 있으며 첫 번째 기반 시설이 형태를 갖추가고 있다.

② VinSpeed 고속철 - 베트남 최초 민자 고속철의 혁명

호치민~껌저 구간은 현재 차로 2시간이 걸린다. VinSpeed 고속철이 완공되면 13~20분으로 줄어든다. 이것은 단순한 교통 편의 개선이 아니다 - 껌저를 호치민의 "베드타운"이 아닌 "핵심 생활권"으로 편입시키는 혁명이다.

③ 껌저의 미래 가치 - 냉정한 평가

빈그룹이 그리는 껌저의 미래는 화려하다. 그러나 투자자와 분석가로서 냉정한 시각도 필요하다.

긍정적 요인부터 보면: 첫째, 호치민이 빈중·바리아붕따우와 통합한 "슈퍼 호치민"의 새 해안 거점이 됐다. 둘째, 고속철(2028)·껌저 대교(2028)·해저터널(2029)·고속도로(2028)가 동시 완공되면 껌저는 4방향 모두 열린 접근성을 갖게 된다. 룽삭 신공항과도 직접 연결된다. 셋째, 태국 푸켓·인도네시아 발리와 비교해 "초기 분양가 수준"으로 중장기 가격 상승 여력이 크다는 평가다. 위험 요인도 분명하다. 1,357ha 해상 매립은 맹그로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다. 유네스코 생물권 완충지대를 통과하는 고속철 노선에 대한 환경 단체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2028년 고속철 개통이 지연될 경우 신도시 부동산 가치도 연동해 흔들린다. "교통망이 없는 해안 도시"는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다.

★ 편집부 종합 평가-껌저는 베트남이 만든 가장 야심찬 도박이다

\$10B 매립 신도시 + \$3.89B 고속철 + \$3.96B 해저터널. 총 \$17B 이상이 하나의 방향을 향한다.

- ① 인프라 동시 완공(2028~2029)이 핵심: 고속철+대교+터널+고속도로 4개가 동시에 열릴 때 가치 폭발.
- ② 한국 기업 기회: 스마트시티 IoT·AI 에너지 관리·친환경 건축자재·빈맥 의료 시설 공급망.
- ③ 최대 리스크: 토지 인도 지연→고속철 공사 차질→신도시 가치 연동 하락. 2026년 하반기가 고비.
- ④ 장기 전망: 호치민 슈퍼시티 편입 + 룽삭 공항 연결 + 해양 경제 허브 = 2030년대 동남아 최고 해안 도시 후보.

반도체 칩이 필요하다, 사람이 없다

베트남 반도체 인재 5만 명 프로젝트의 구상·타당성·해결책

현재 1만5천 명 → 2030년 5만 명 목표 · 부족분 3만5천 명 · 국가 예산 26조 동 투입 · 97개 대학 반도체 커리큘럼 · 삼성 ATMP 테스트 공장 계획 · 일본 JST 공동연구 · KAIST 모델이 해답

2030년까지 반도체 엔지니어 5만 명. 베트남 정부가 2024년 9월 공식화한 이 목표는 야심차지만 냉정하게 보면 "숫자가 먼저, 질이 나중"이라는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 정부에 반도체 ATMP(조립·테스트·패키징) 생산 공장 투자 의향을 전달했다.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ST)는 반도체 설계·소재 분야 공동연구 2차 공모를 진행 중이다. 인텔·구글·스페이스X도 베트남 반도체 인재 확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지금 베트남에 있는 반도체 전문 인력은 고작 1만5,000명이다. 2030년까지 5만 명을 만들어야 한다면 앞으로 4년 안에 3만5,000명을 추가로 배출해야 한다. 가능한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현재 반도체 인력	국가 예산 투입 계획	2030 목표 세부 구성
1만5천 명 목표 5만 대비 부족 3만 5천 명	\$1B+ · 2024~2030 · 5대분야	5만 명 학사4.2만 · 석사7천5백 · 박사5백

소자 - 이것은 대학원 수준의 연구형 인재다. 베트남의 2030년 목표에서 석사 7,500명·박사 500명이 이 층위를 담당하는데 이 숫자는 일본·미국의 단일 대학이 배출하는 규모와 비슷하거나 적다. 결론적으로 베트남은 삼성의 "지금 당장 실무형"과 일본의 "고급 연구형" 수요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 커리큘럼은 어느 쪽도 제대로 겨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③ 해결의 열쇠 - 3가지 필수 전환

베트남 반도체 인재 전략이 2030년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면 세 가지 전환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첫째, "숫자 목표"에서 "품질 표준"으로 전환이다. 5만 명이라는 숫자 달성보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채용 가능한 역량 기준(Competency Standard)" 설정이 우선이다. TSMC·삼성·인텔의 채용 기준을 역산해 커리큘럼을 설계하는 "수요 역산형(Demand-Pull)" 교육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기업 주도 실습 체계 구축이다. 대학 교육만으로 실무 엔지니어를 만들 수 없다. 삼성·인텔·PPT반도체가 "기업 내 부트캠프"를 운영하고 대학과 공동으로 인턴십·현장 실습 학점을 부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미 CT반도체가 이 모델을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셋째, 해외 인재 환류 프로그램이다. 현재 해외에서 활동하는 베트남 반도체 엔지니어가 수천 명에 달한다. 이들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파격적 인센티브 - 세금 면제·주거 지원·연구비 지원 - 가 필요하다. 대만 TSMC 설립 때 사용한 해외 인재 환류 전략이 그 모델이다.

④ 한국의 협력 기회 - KAIST 모델부터 장비까지

베트남 반도체 인재 전략에서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경로는 구체적이고 다층적이다.

가장 강력한 카드는 "KAIST 모델"이다. KAIST는 1970년대 한국이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산업이 원하는 인재를 바로 배출하는" 대학으로 설계됐다. 베트남이 지금 필요한 것이 정확히 이 모델이다. KAIST·포항공대·성균관대가 호치민 기술대·하노이 공과대와 공동 "베트남 반도체 대학원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한국 교수진이 현지에서 직접 강의하는 방식이 현실적 협력 모델이다.

삼성·SK하이닉스·한국 반도체 장비 기업(원익IPS·주성엔지니어링)은 베트남 반도체 실험실에 장비를 기증·임대하고 그 대신 졸업생 채용 우선권을 갖는 "장비 투자-채용 연계 모델"이 가능하다. 국내 EDA 스타트업들이 베트남 대학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공급하는 것도 진입 비용이 낮으면서 효과는 큰 협력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베트남 교육훈련부 간 "반도체 교육 협력 MOU"를 즉시 체결해야 한다. 2026년 하반기가 골든 타임이다 - 일본이 JST를 통해 이미 체계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 편집부 총평 - 베트남의 반도체 꿈은 "인재"라는 단 하나의 벽에 막혀있다

\$1B 예산·5만 명 목표·97개 대학 - 숫자는 있다. 그런데 가르칠 교수도, 훈련할 장비도 부족하다.

- ① 핵심 과제: "5만 명" 달성보다 "삼성이 쓸 수 있는 5만 명" 달성이 진짜 목표여야 한다.
- ② 삼성 기회: ATMP 패키징 인력 부족 3만5천 명. 삼성 부트캠프 모델로 공장 가동과 인재 동시 해결.
- ③ 한국 최우선: KAIST 모델 수출 + 장비 기증-채용 연계 + EDA 소프트웨어 공급. 지금 움직여야.
- ④ 경고: 일본 JST는 이미 커리큘럼 설계에 들어갔다. 한국이 늦으면 베트남 반도체 인력은 "일본 규격"이 된다.

[출처: VietnamPlus · Vietnam.vn · VietNam News · JST Japan · Viet Tonkin Consulting · The Register · VnEconomy (2024~2026.06.03)]

▶ 베트남 반도체 인재 육성 국가 프로그램 - 구조와 내용

항목	수치·현황	세부 내용
근거 법령	결정 1018·1017호 (2024.9 총리 서명)	2030년 비전 2050. 5만 명 인력 + 국가 반도체 실험실 4개 + 기관 실험실 18개
인력 목표 세분	학사 4.2만·석사 7,500·박사 500	설계 분야 1.5만 명. 제조·패키징·테스트 3.5만 명. AI 연계 5,000명 별도
예산 배분	총 26조 동 (\$1B+)	인재 육성 14조·R&D 1.5조·시설 6.4조·생태계 3.7조·기타 0.4조
교육 인프라	97개 대학 30개 공식 프로그램	하노이 공과대·호치민 국립대·VJU(한-베대) 포함 166개 관련 기관
반도체 동맹	2025.11 VNU-하노이 창설	5개 대학 연합→전국 동맹. 교육-연구-산업 연계 오픈 에코시스템 구축
2025 성과	신입생 1.9만 명	STEM 학생의 10%가 반도체 관련 전공 선택. 전년 대비 35% 증가

① 구상의 타당성 - 무엇이 맞고 무엇이 부족한가

베트남 정부의 반도체 인재 육성 구상은 방향은 맞지만 속도와 질 관리에서 구조적 취약점이 있다.

맞는 것부터 보면: 반도체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공식 지정하고 \$1B 이상의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결단은 올바르다. 인재 육성 없이 반도체 산업이 불가능하다는 인식도 정확하다. 97개 대학으로 공급 채널을 빠르게 확산한 것도 긍정적이다. 2024~2025년 반도체 전공 신입생이 35% 급증한 것은 정책의 첫 성과다.

그러나 세 가지 구조적 문제가 있다. 첫째, 교수 부족이다. 교육부가 반도체 분야 강사 1,300명을 재교육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반도체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수는 전국에 수백 명에 불과하다. "학생은 늘었는데 선생이 없다"는 현실이다. 둘째, 장비 부족이다. 반도체 설계를 가르치려면 EDA(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와 팹리스 설계 환경이 필요하다. 4개 국가 반도체 실험실 구축 계획이 있지만 2030년까지 완공되더라도 그 용량은 5만 명 훈련에 턱없이 부족하다. 셋째, 질 관리 기준이 없다. 97개 기관이 반도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커리큘럼 표준화·졸업생 역량 검증 체계가 아직 미완성이다. "5만 명"이라는 숫자는 달성할 수 있어도 "삼성이 채용할 수 있는 5만 명"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② 삼성 ATMP 공장과 일본 JST - 수요 측과 공급 측의 미스매치

삼성전자가 베트남 정부에 전달한 반도체 ATMP 공장 투자 의향과 일본 JST의 설계·소재 공동연구는 서로 다른 층위의 인재를 필요로 한다. 이 미스매치가 베트남 반도체 인재 전략의 핵심 도전이다.

삼성 ATMP가 필요한 인력은 "조립·테스트·패키징" 엔지니어다. 이것은 반도체 가치 사슬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치 영역이지만 현재 베트남 반도체 인력의 절반 이상(8,000명)이 이 분야에 있다. 수요 3만5,000명 대비 공급 8,000명으로 패키징 인력 부족이 가장 심각하다. 삼성 관점에서 베트남이 필요한 것은 "당장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실무형 기술 인력"이다.

일본 JST가 요구하는 인력은 다르다. EDA 설계, 첨단 패키징 소재, 파워반도체

HWASEUNG Enterprise

화승엔터프라이즈

당신이 아는 화승 당신이 몰랐던 화승

하나를 하고도 열을 드러내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열을 하고도 하나를 밝히기 어려워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름을 알리기보다는 기술의 부족함을 연구하고
길을 닦기보다는 속과 뒤, 그리고 신뢰를 다져온 화승그룹

진심이 있는 기술은 깊이가 다릅니다
역사가 있는 혁신은 내일이 다릅니다

교민과 항상 함께하는 글로벌 스포츠 패션 기업

HWASEUNG
Enterprise

커피 왕국 30년, 쯙위엔(Trung Nguyên) 완전 해부: 창업 이혼 전쟁 글로벌 도약

1996년 닥락 창업 · 60개국 수출 · 국내 800+ 프랜차이즈 · 미국 11개 매장 · 이혼 5년 법정 혈투 종결 · E-Coffee 3,000매장 목표 · 2026 ASEAN Top 5 브랜드 · 한국 진출 계획



1996년, 베트남 커피의 수도 닥락(Đà Lạt)의 한 청년이 자전거로 원두를 팔기 시작했다.

당 레 응우옌 부(Đặng Lê Nguyễn Vũ). 당시 의대생이었던 그는 학업을 접고 커피에 모든 것을 걸었다. 30년 후, 그가 만든 쯙위엔(Trung Nguyên·中原)은 베트남 최대 국내 커피 브랜드로 60개국에 수출되며 미국·중국·대만에 직영·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베트남 커피 제국이 됐다. 그 성공의 이면에는 베트남을 뒤흔든 "10년 이혼 전쟁"이 있었다.



① 이혼 전쟁 - 베트남을 뒤흔든 10년 법정 혈투

2013년 창업자 당 레 응우옌 부가 49일 명상 수련 후 돌아왔을 때 아내 레 호앙 디엵 타오는 남편이 달라졌다고 느꼈다. "정신적으로 손상됐다"는 것이 아내의 주장이었다. 베트남 언론은 이 부부를 "커피 킹&퀸"이라 불렀다. 그 왕과 왕비의 전쟁은 2013년 시작해 2021년에야 끝났다.

2015년 창업자는 아내를 부사장에서 해임하고 회사 출입을 막았다. 아내는 "내가 초기 회사 성장의 핵심이었는데 부당하게 쫓겨났다"며 맞섰다. 법정 다툼은 5년 이상 이어졌다. 2019년 1심 - 법원은 창업자의 기여도가 더 크다고 판단해 자산 60%(약 \$1억4,700만) 창업자, 40% 아내로 분할했다. 창업자가 경영권을 유지하기로 했다. 2021년 최종 판결이 확정되면서 창업자는 아내에게 5,120만 달러(약 680억 원)를 현금으로 지급했고 아내는 모든 쯙위엔 지분을 이전했다. 아내는 이 돈으로 "King Coffee"를 창립해 독자적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다. 이 이혼 전쟁이 베트남 사회에 남긴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아내의 기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베트남 가족법·기업법의 논쟁을 촉발했다. 둘째, 기업 지배구조의 취약성 -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베트남 가족 기업들이 내부 갈등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냈다.

창업 연도 · 장소	국내 매장 (E-Coffee+)	해외 수출 국가 수
1996년 닥락성 부온마투엿 · 자전거 원두 판매 출발	800개+ 월 30개 신규 개설 · 3,000개 목표	60개국+ 미국·중국·EU·한국·일본·중동 등

▶ 쯙위엔 30년 연표 - 창업에서 글로벌까지

1996년	창업	부온마투엿 닥락성 창업. 당 레 응우옌 부 의대 자퇴 후 원두 판매 시작
1998년	HCMC 1호점	호치민 푸뉴안 587 응우옌킴 거리 첫 카페 개설. 아내 레 호앙 디엵 타오와 공동 운영
2003년	G7 런칭	통일궁 블라인드 테스트 - 참가자 89%가 네스카페보다 G7 선호. 인스턴트 시장 혁명
2006년	APEC 공식	APEC 2006 공식 커피로 선정. 베트남 커피의 국가 브랜드화
2008년	싱가포르	싱가포르 첫 해외 매장 오픈. 국제 진출 시작
2013년	명상 충격	창업자 49일 명상 후 행동 변화. 아내가 "정신 이상" 우려 → 부부 갈등 시작
2015년	갈등 폭발	창업자 아내를 부사장직에서 해고. 베트남 최대 기업 스캔들로 비화
2019년	1심 판결	호치민 법원 → 창업자 60% 아내 40% 자산 분할. 창업자가 경영권 유지
2021년	최종 종결	최종 이혼 판결 확정. 창업자가 아내에게 5,100만(\$) 현금 지급. 아내 전 지분 이전
2023년	美 진출	미국 로스앤젤레스 첫 해외 직영점 오픈
2025~6년	글로벌 가속	미국 11개점·대만 첫 진입·중국 확장. ASEAN Top 5 브랜드 수상





▶ 매장 구조와 운영 방식

브랜드·유형	운영 방식	특징·규모
쭙위엔 레전드 (Trung Nguyên Legend)	직영 프리미엄	전국 110개+ 직영. 대형 공간·책·음악·철학 콘셉트. 「커피 성소」 체험
E-Coffee (이-커피)	프랜차이즈 소형	국내 800개+·해외 진출 중. 4㎡ 소형 팝업 가능. 투자비 \$2,279~9,971. 월 30개 신규
레전드 커피 월드 (Coffee World)	대형 체험관	미국 샌호세·휴스턴·포틀랜드 등 대형 문화 공간. 커피+전시+미식 복합
국내 총 매장	900개+	레전드 직영+E-Coffee 프랜차이즈 합산. 3,000개 목표 향해 확장 중

② 메뉴와 레시피 철학 - "커피는 철학이다"

쭙위엔 레전드 카페의 메뉴는 일반 커피숍과 다르다. 매장에는 커피뿐 아니라 책·음악·철학 콘텐츠가 함께한다. 창업자 당 레 응우옌 부의 "커피는 음료가 아니라 영감(inspiration)이다"라는 철학이 메뉴 구성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

핵심 메뉴는 세 층위로 구성된다. 첫째, 전통 베트남 핀 드립(Phin) 커피가 기반이다. 시벳 커피·콘텐드스 밀크·에그 커피가 전통 라인의 주축이다. 둘째, Legendee 블렌드가 프리미엄 라인이다. 아라비카·로부스타·엑셀사·카티모르 등 5종 원두를 배합한 시그니처 블렌드로 "세계 최고 커피"를 표방한다. 셋째, 유러피안 에스프레소 라인이다. 아메리카노·라떼·카푸치노를 베트남 원두로 구현한다. 인스턴트 라인에서는 G7이 대표적이다. G7 3in1의 "밤 향(chestnut flavor)"이 서구 소비자들에게도 독특하고 매력적으로 평가받으며 해외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 수출 제품 & 해외 매장 현황 (2026년 기준)

분야	현황	세부 내용
수출 주력 제품	G7 3in1 인스턴트 · Legendee 원두 · 캡슐 커피	60개국+ · 아마존·미국 한인마트·유럽 베트남 디아스포라 채널
미국 매장	11개점 (2026.4 기준)	레전드 6개+E-Coffee 5개. LA·샌호세·휴스턴·포틀랜드·텍사스. 100개 목표
중국 매장	확장 중	상하이·베이징 중심. G7→ 중국 동부 배급 계약. 1.4억 인구 시장
대만 매장	2026.4 첫 진입	레전드 1호점 오픈. 아시아 고급 커피 시장 진출
기타 해외	아이슬란드·싱가포르 등 다국가	싱가포르 2008년 진출. 아이슬란드 E-Coffee 이색 존재. 한국·일본 진출 계획
향후 진출 계획	한국·일본·인도·두바이 프랑스·호주·캐나다	공식 발표. 프랜차이즈 파트너 모집 중. 한국은 2026~2027 목표

③ 한국과의 협력 모델 - 어떤 기회가 있는가

쭙위엔은 한국을 공식 진출 목표 시장으로 발표했다. "한국·일본·인도·두바이·프랑스·호주·캐나다" 진출 계획이 2025년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됐다. 한국 기업에게 이것은 세 가지 협력 기회다.

첫째, 마스터 프랜차이즈 파트너십이다. 쭙위엔 E-Coffee의 한국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획득하면 투자비 \$2,279~9,971의 낮은 진입 비용으로 국내 1,000~3,000개 매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K-커피 트렌드와 베트남 커피 문화의 결합이 한국 MZ세대에게 어필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G7 인스턴트 커피 유통이다. 한국 편의점·이커머스 채널(쿠팡·마켓컬리)을 통한 G7 유통은 베트남 음식 인지도 상승과 함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셋째, B2B 협력이다. 한국 OEM 식품 기업이 쭙위엔 원두를 활용한 K-스타일 커피 제품을 역으로 베트남·동남아에 수출하는 "역방향 협력 모델"도 가능하다. 단, 경쟁 변수를 직시해야 한다 - 전 아내 레 호앙 디엵 타오의 "King Coffee"가 이미 한국 시장을 독자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는 점이다. 쭙위엔과 King Coffee는 한국에서도 직접 경쟁하게 될 것이다.



★ 편집부 평가 - 쭙위엔은 베트남 커피가 브랜드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한 유일한 사례다

자전거 원두 판매 → 60개국 수출 → 미국 11개점. 이 30년이 베트남 소비재 브랜딩의 교과서다.

- ① 이혼 전쟁의 유산: 브랜드는 살아남았다. 오히려 경쟁자(King Coffee)를 탄생시켜 시장을 키웠다.
- ② 강점: G7의 독특한 밤 향·핀 드립 전통·철학 브랜딩. 스타벅스와 차별화된 "문화 커피" 포지셔닝.
- ③ 약점: 디지털 전환 지연·CRM 미완성·브랜드 일관성 관리. E-Coffee 3,000개 품질 유지가 과제.
- ④ 한국 기회: 마스터 프랜차이즈·G7 유통·B2B 원두 협력. 단, King Coffee와의 한국 경쟁에 주목.

[출처: Trung Nguyên Legend 공식 · Vietnam.vn · VnExpress · Asia Times · Retail News Asia · Wikipedia · LS Retail · GrowthHQ (2019~2026.06)]

베트남 영화 시장이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V-Film 창립·JVeveermind CEO·박스오피스 5,600억 동의 의미

2025 박스오피스 5,600억 동 역대 최고 · 7,000만 장 판매 · 국산 점유율 62% · 1인당 관람 0.7회→1.0회 목표 · 빈그룹 V-Film 창립 · 80% 30세 이하 관객 · 2030년 세계 Top 10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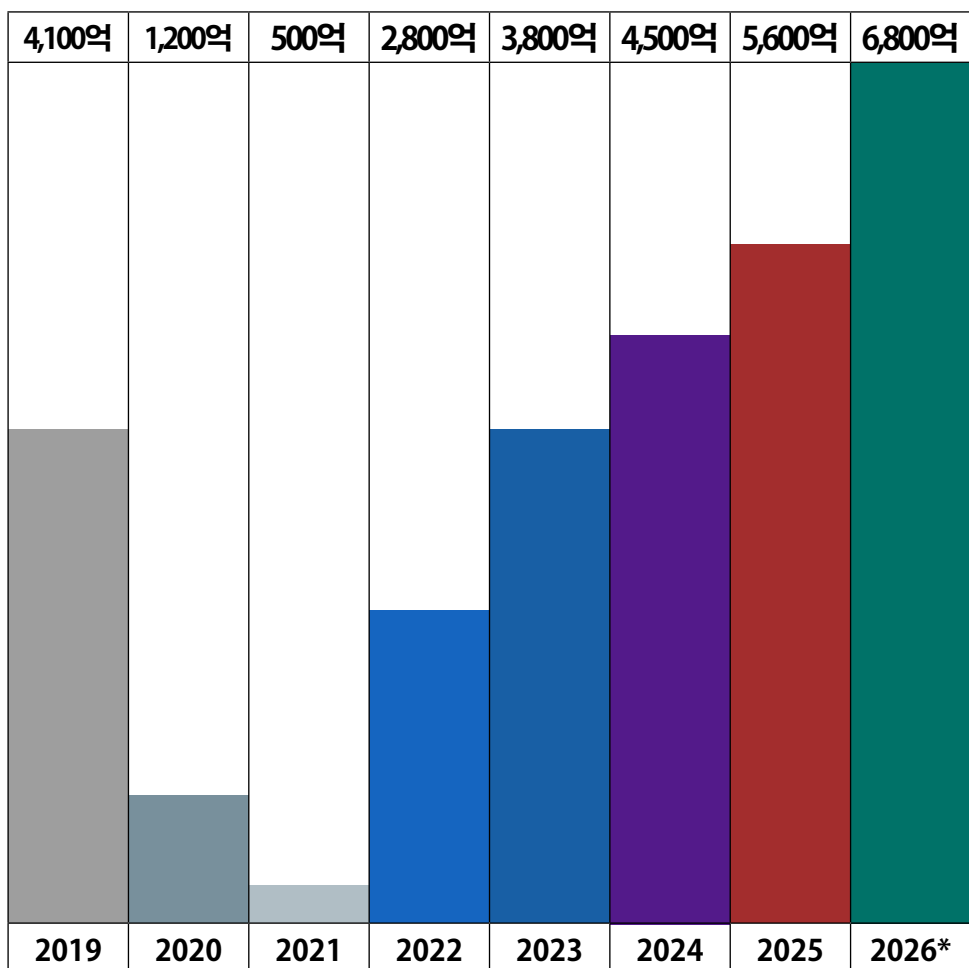


베트남 영화 시장이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2025년 베트남 박스오피스 총매출이 5,600억 동(약 2,200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티켓 7,000만 장, 국산 영화 점유율 62%, 전년 대비 24% 성장. 코로나 이전(2019년)보다 35% 이상 성장한 이 숫자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다 - "베트남 영화의 시대가 시작됐다." 그리고 그 흐름 위에 동남아 최대 재벌 빈그룹이 V-Film이라는 이름으로 올라탔다.

2025 박스오피스 총매출	국산 영화 시장 점유율	2025 티켓 판매량
5,600억 동 역대 최고 · +24% YoY · \$2.2억	62% 2024년 43% → 2025년 62%	7,000만 장 전년대비 +29% · 연간 최다 기록

▶ 베트남 박스오피스 연간 매출 추이 (단위: 억 동 · * 2026 추정)



▲ 출처: Box Office Vietnam · CGV Vietnam · Vietnam.vn (2026.03) | 코로나 직격 2020~2021 이후 V자 반등. 2025년 사상 최고. 2026년 7,000억 동 돌파 전망

① 누가 영화를 보는가 - MZ세대가 스크린을 점령했다

베트남 영화 관객의 80%가 30세 이하다. 이것이 베트남 영화 산업 전체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숫자다.

베트남 인구 중위 연령은 31세. CGV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 관객의 80% 이상이 30세 미만이며 이들 중 75% 이상이 스마트폰으로 티켓을 예매한다. 틱톡에 올라온 영화 예고편이 바이럴되면 그 주말 영화관이 꽉 찬다 - 이것이 2024~2025년 베트남 흥행의 공식이다. 설(Tết) 연휴 영화 시장이 가장 크다. 2026년 설 연휴 기간에만 700억 동 이상이 집중됐다. 1인당 연간 관람 횟수는 현재 0.7회로 싱가포르(1.3회)·말레이시아(1.0회)보다 낮지만 업계는 2030년 1.0회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그것만으로도 시장 규모가 40% 이상 더 커진다.

▶ 베트남 관객이 좋아하는 장르 - 공포에서 역사물까지

장르	관객 선호도	대표 흥행작 · 특징
공포·스릴러	★★★★★ 1위	형혈병: 머리 없는 공포(2025) 12개국 배급. 베트남 전설+현대 스릴러. 역대 최고 수출
역사·전쟁물	★★★★☆ 급성장	어둠 속 태양·붉은 비(2025) 700억+ 동. "역사 블록버스터 시대" 선언. 2025년 최대 반전
로맨틱 코미디	★★★★☆ 안정적	마이(2024) 550억 동. 설 연휴 최강 장르. 베트남 특유 가족·정서 코드가 흥행 요소
액션·어드벤처	★★★★☆ 성장 중	할리우드 대항 국산 액션을 증가 추세. V-Film이 목표하는 주력 장르
애니메이션	★★★★☆ 신흥	베트남 전통 민화·영웅 서사 기반 애니 부상. 가족 시장 공략. 국제 공동 제작 증가
공연 기반	★★★☆☆ 틈새	K-팝 콘서트 영화·다큐. 한류 소비 채널로 영화관 활용 확대

② V-Film과 JVeveermind - 빈그룹이 영화판을 바꾸러 왔다

2026년 5월, 동남아 최고 부자 팜 브영의 빈그룹이 영화 스튜디오 V-Film을 창립하고 유튜버 JVeveermind(전득비엣)를 CEO로 임명했다.

JVeveermind는 베트남 1세대 유튜버로 구독자 수백만 명의 IT·라이프스타일 채널을 운영해왔다. 그를 CEO로 앉힌 것은 "디지털 네이티브 감각으로 영화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다. V-Film의 전략은 세 축이다. 첫째, OTT와 극장을 동시 공략한다. 빈그룹 자체 플랫폼 연계와 극장 배급을 수직 통합하는 모델이다. 둘째, IP 기반 프랜차이즈 영화를 만든다. 베트남 전통 영웅 서사·민화·역사적 사건을 원작으로 한 "Made in Vietnam" 프랜차이즈 구축이다. 셋째,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다. 아시아 전역과 해외 베트남 디아스포라(500만 명) 시장을 동시에 노린다. 빈그룹의 자본력 + JVeveermind의 디지털 감각 + 베트남 영화 붐. 이 세 요소의 결합이 V-Film을 단순한 영화사가 아닌 문화 제국 건설의 도구로 만든다.

③ 베트남 영화 2030 비전 - 세계 Top 10

베트남 정부와 영화 업계의 공동 목표는 "2030년 세계 Top 10 영화 시장 진입"이다. 무모해 보이지만 숫자를 들여다보면 가능성이 보인다.

현재 1인당 연간 관람 0.7회가 싱가포르 수준(1.3회)에 도달하면 시장 규모는 자동으로 두 배가 된다. 2024년 기준 전국 1,100개 스크린은 여전히 인구 대비 한국의 5분의 1 수준이다. 지방 도시 스크린 확대와 멀티플렉스 증설이 병행되면 성장 여력은 충분하다. 국제 진출도 현실이 됐다. 2025년 공포 영화 "형혈병"의 12개국 배급은 "베트남 영화가 해외에서도 팔린다"는 첫 번째 증거다. "2030년 연간 티켓 1억 장, 박스오피스 1조 동" - 이것이 업계가 그리는 베트남 영화의 다음 10년이다.

★ 편집부 평가- 베트남 영화는 "붐"이 아니라 "구조적 성장"의 초입에 있다

62% 국산 점유율은 단순 유행이 아니다. 콘텐츠 품질 향상의 구조적 결과다.

- ① V-Film+JVeveermind: 빈그룹 자본 × 디지털 감각 × IP 프랜차이즈 = 베트남판 마블의 씨앗.
- ② 한국 기업 기회: VFX · 촬영 기술 · 배급 협력 · 공동 제작 · 한류 IP 활용 4대 협력 경로 열렸다.
- ③ 공포 · 역사물 강세: 한국 공포 영화 연출 · VFX 기술이 가장 빠르게 협력 가능한 분야다.
- ④ 과제: 1인당 0.7회는 아직 낮다. 스크린 확충 · 지방 시장 개발이 2030 Top 10의 열쇠다.

[출처: Vietnam.vn · Box Office Vietnam · CGV Vietnam Strategic Partnership Report · VNExpress International · The Shiv · WifitalentsStats (2025~2026.06)]

바람이 먼저 알고 있었다

무이네 해안, 바다 바람과 베트남 전통 힐링의 만남

Booking.com 2026 세계 신흥 여행지 1위 · 연간 바람 227일 · 참(Cham)족 전통 의례 · 어촌 민간 해양 치유 · 베트남 전통 쑤어 자오(Xoa Giác) 부항 · 포사누 참탑 정신 힐링 · 해풍 모래 찜질 · 새벽 어촌 해산물 보양식

2026년 Booking.com이 무이네를 세계 최고 신 흥 여행지로 꼽은 데는 이유가 있다.

단순히 바람이 좋고 모래가 예뻐서가 아니다. 무이네 는 베트남에서 가장 오래된 힐링의 땅 중 하나다. 8세 기부터 13세기까지 이 해안을 지배했던 참(Cham)족은 바람과 바다를 신성하게 여기며 해양 치유 의례를 발 전시켰다. 그 위에 베트남 어촌 문화의 민간 치유 전통 이 덧입혀졌고 오늘날 무이네는 현대 웰니스와 전통 힐 링이 공존하는 베트남 유일의 해안 힐링 성지가 됐다.



무이네 힐링 기본 정보

위치	빈투언성(Bình Thuận) 판티엣시 무이 네 - 호치민에서 북동쪽 200km
세계 평가	Booking.com 2026 세계 최고 신흥 여행지 1위 선정
기후	연간 바람 227일 · 베트남 최저 강우량 · 연평균 기온 27° C
역사	8~13세기 참족 해양 문명의 중심지 · 포사누 참탑 현존
전통 치유	참족 해양 의례 + 베트남 남부 민간 해 풍 치유 + 어촌 보양 음식
최적 방문	11월~4월 건기. 전통 힐링 목적은 12~3월 바람 최강 시기

고온의 모래가 피부와 접촉하면 혈액순환이 촉진 되고 근육의 긴장이 풀리며 관절의 만성 통증이 완화 된다. 특히 류머티즘·관절염·냉증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이네 현지 어르신들은 지금도 관절이 아 플 때 붉은 모래언덕에 올라 모래를 허리·무릎에 덮 고 30~40분을 보낸다. 비결은 타이밍이다. 오전 중에 는 모래가 미지근하다. 오후 2~4시 사이, 하루 중 가 장 달궈진 모래 표면 5~10cm 아래에 몸을 눕히고 이 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 머리를 식히면서 20~30분 동 안 온열을 받는 것이 전통 방식이다. 찜질 후에는 반드시 따뜻한 물로 씻고 신선한 코코넛 워터로 수분을 보 충한다.

③ 포사누 참탑 참배 - 8세기 해양문명의 영적 치유



포사누 참탑(Tháp Poshanu) · 8~13세기 참족 성지 · 무이네 시내에서 5km

무이네 시내에서 북쪽으로 5km, 언덕 위에 세 계 의 붉은 탑이 하늘을 향해 서 있다. 포사누 참탑(Tháp Poshanu), 8세기부터 13세기까지 이 해안을 다스린 참족이 시바(Shiva) 신에게 바쳐 세운 힌두 성소다.

참족에게 이 탑은 바다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제 의 공간이었다. 지금도 무이네 어촌 주민들은 출항 전 이 탑에서 제물을 올리고 바다의 신에게 안전과 풍어를 빈다. 3월 참족 전통 축제인 "까떼(Katê)"가 열리면 참 족 후손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모여 춤·음악·제례를 올 린다. 힐링 여행자에게 이 탑은 다른 의미를 가진다. 탑 이 서 있는 언덕에서는 무이네 해안선 전체가 한눈에 들어온다. 이른 아침 이 언덕에 올라 바다를 향해 앉아 1,300년의 시간이 쌓인 돌탑을 등지고 명상하는 것은 무이네에서 가장 깊은 정신적 치유 체험이다.

④ 쑤어 자오(Xoa Giác) - 베트남 전통 부항 · 굽 기요법

베트남 민간 의학 · 쑤어 자오(부항/굽기) · 무이네 전 통 스파에서 체험 가능

"쑤어 자오(Xoa Giác)"는 베트남 전통 민간 의학에 서 바람을 맞아 생긴 몸의 막힘을 뚫는 치유법이다. 동 전이나 손가락으로 피부를 긁어 혈류를 자극하는 "까 우아(cao gio)"와 작은 컵으로 피부를 흡착하는 "찜 훗 (giác hoi·부항)"이 대표적이다.

까우아(Cao gio·굽기 요법)는 "바람병(trúng gió)"이라 불 리는 감기·두통·근육통·소화불량을 치료하는 베트남 가 정 의 가장 일상적인 민간 치유다. 등·목·어깨를 따뜻한 기름을 바른 뒤 동전으로 강하게 긁으면 피부에 붉은 자 국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람과 독소가 빠져나가는" 표시 라고 여긴다. 현대 의학적으로는 피부 미세 혈류 촉진과 국소 염증 반응을 통한 면역 활성화로 해석된다. 찜 훗(부 항)은 등과 어깨 경혈점에 뜨거운 컵을 올려 음압으로 혈 류를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무이네의 여러 전통 스파에 서 해변 스파 트리트먼트와 결합된 형태로 체험할 수 있 다. 1~1.5시간 세션 기준 20만~40만 동(\$8~15).

⑤ 새벽 어촌 보양 해산물 - 바다가 차려주는 밥 상 치유

무이네 어항(Bến cá Mũi Né) · 새벽 4~6시 · 현지인 보양식

무이네의 전통 힐링은 먹는 것에서도 이어진다. 새벽 4시, 동이 뜨기 전부터 어항에는 불이 켜진다. 밤새 조 업을 마치고 돌아온 어부들과 함께 그날 잡힌 가장 신 선한 해산물이 어항에 펼쳐진다.

무이네 어부들의 아침 보양식은 "짜오 하이 썬(Cháo Hải Sản)" - 해산물 죽이다. 갓 잡은 새우·조개·오징어 를 넣고 끓인 이 죽에 생강·레몬그라스·향채를 더하면 몸 을 안에서부터 따뜻하게 하는 해장이자 보양식이 된 다. 베트남 남부 전통 의학에서 해산물은 "바다의 기 운(khi bien)"을 담고 있어 피로 회복·면역 강화·혈액순 환에 좋다고 여겨진다. 특히 무이네의 특산물 멸치젓 (Nước Mắm Phan Thiết)은 베트남 최고 품질의 발효 젓 갈로 요오드·아미노산·미네랄이 농축된 천연 건강식품 이다. 어항에서 사는 멸치젓 한 병을 들고 귀국하는 것 이 무이네를 방문한 건강 여행자들의 불문율이 됐다.

무이네는 치유를 팔지 않는다. 그냥 내준다.

Booking.com이 세계 신흥 여행지 1위로 선 정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화려한 스파 마케팅이 아니라 1,300년 참족 영성의 탑, 수백 년 어촌 민간 치유의 바람, 새벽 어항의 잔내 나는 진짜 삶 - 이것들이 무이네를 현대 웰니스 여 행지의 틀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곳으로 만든다.

[출처: Vietnam Tourism · VietnamPlus · Booking.com Travel Predictions 2026 · SIT Study Abroad Vietnam · North-Vietnam. com · TripAdvisor (2025~2026.05)]

① 해풍 치유(海風治癒) - 바람이 처방하는 가장 오래된 약

베트남 전통 민간 의학 · 무이네 해안 · 자연 요법
무이네의 바람은 단순한 기상 현상이 아니다. 베트남 남부 어촌 사람들에게 해풍(海風)은 수백 년을 이어온 치유의 도구다.

베트남 남부 해안 전통 의학에서 "바람을 맞는 것 (hong gió biển)"은 피부병·호흡기 질환·관절염·만성 피 로를 다스리는 민간 처방이다. 현대 과학도 이를 뒷받 침한다. 해풍에는 음이온·요오드·마그네슘·브롬이 풍 부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이 성분들이 기관지 점막을 청소 하고 면역 반응을 안정시킨다는 것이 확인됐다. 무이네 의 12~25노트 해풍은 동남아에서 이 효과가 가장 강 한 수준이다. 전통적으로 무이네 어부들은 몸이 좋지 않을 때 새벽 해변에 돛자리를 펴고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누워 잠든다. "바람이 병을 데려간다"는 이 믿 음은 민간 신앙을 넘어 실질적 치유 행위다. 여행자들 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무이네 전통 힐링이기도 하다 - 새벽 5~7시, 해변 돛자리 하나, 그것으로 충분하다.

② 모래찜질(砂浴) - 뜨겁게 달궈진 붉은 모래의 치유



무이네 붉은·흰 모래언덕 · 베트남 전통 사욕(砂浴) · 자연 온열 요법

무이네 붉은 모래언덕의 모래는 오후 3~4시가 되면 50~60°C까지 달아오른다. 이 뜨거운 모래 속에 몸을 묻 는 "모래 찜질"이 베트남 남부 해안 전통 온열 요법이다.

우기에만 열리는 수상 밀림의 마법 짜수 카주푸트 숲(Rừng Tràm Trà Su)

안장성 · 850ha 수상 밀림 · 호치민에서 5시간 · 6~11월 우기 전용 · 200종+ 조류 · 나무 보트 2시간 · 새벽 5시 일출 보트가 최고의 순간 · 입장료 4만 동

여기에는 비가 내려야 문이 열린다.

메콩 델타 서쪽 끝, 안장(An Giang)성, 짜수(Trà Su) 카주푸트 숲은 850ha 규모의 수상 밀림이다. 건기에는 평범한 숲이다. 그러나 6월, 우기의 빗물이 메콩 강 지류를 타고 밀려들면 이 숲은 완전히 다른 얼굴이 된다. 카주푸트(Melaleuca·차나무과) 나무들의 뿌리가 물에 잠기고 숲 전체가 수면 위에 떠오른다. 그 안으로 좁은 나무 배가 소리 없이 미끄러진다. "현실이 아닌 것 같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풍경이 펼쳐진다.



짜수 카주푸트 숲 기본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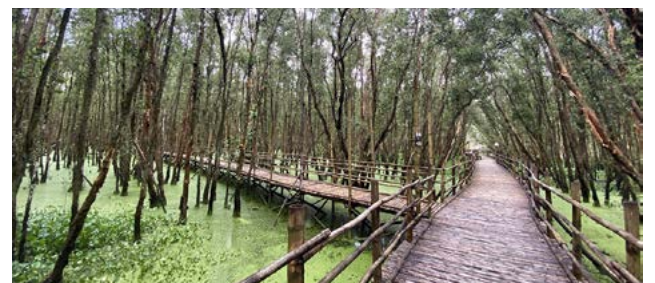
위치	안장성 띠엔안군 반저이면·짜우독 (Châu Đốc) 시내에서 약 23km
면적	850ha 수상 카주푸트 밀림·메콩 델타 서부 저지대
최적 시기	6월~11월 우기·수위 최고조 8~10월 ·새벽 5~7시 일출 보트 최강
찾아가기	호치민 미엔다이 버스터미널 → 짜우독 버스 5~5.5시간 · 짜우독→짜수 30분
비용	입장료 4만 동(\$1.5)·나무 보트 2시간 왕복 10만~15만 동/인
숙박	짜우독 시내 호텔 \$15~40/박·짜수 인근 게스트하우스 \$10~20/박
주의사항	6~11월 모기 매우 많음·긴팔·긴 바지·방충제 필수·우기 폭우 시 관람 제한 가능
주변 명소	빅드영 산(Núi Cám)·짜우독 수상 마을·띠엔하우 사원 연계 코스 추천

① 수상 밀림의 탄생 - 우기가 만드는 기적

건기의 짜수와 우기의 짜수는 같은 장소가 맞나 싶을 만큼 다르다. 6월 첫 번째 큰비가 내리고 며칠이 지나면 숲이 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카주푸트(Melaleuca cajuputi)는 열대 습지에 적응한 나무다. 하얀 줄기와 가느다란 잎을 가진 이 나무는 뿌리가 물에 잠겨도 수개월을 버틴다. 수위가 올라가면 나무 뿌리가 물 속으로 사라지고 마치 나무들이 물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초록 이끼가 낮은 가지를 덮고 수면에는 연두색 부평초가 카펫처럼 깔린다. 작은 나무 배가 이 초록 카펫 위를 가르며 나아가면 뱃머리가 만들어내는 물결이 수면의 나무 그림자를 잔물결로 흔든다. 그 시각적 아름다움은 어떤 사진으로도 완전히 담기지 않는다.

② 새벽 5시 보트 - 짜수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짜수 여행에서 하나만 고르라면 새벽 보트다. 오전 5시 입장, 동이 뜨기 직전 숲으로 들어가는 것.



새벽 빛이 카주푸트 숲 사이로 처음 스며드는 순간 - 나무 사이에 걸린 안개가 황금빛으로 물들고 잠에서 깨어난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르는 그 수십 초가 짜수에서 가장 압도적인 장면이다. 자바 왜가리(Javan Pond Heron)·동양 독수리 부엉이·저어새 등 200종 이상의 조류가 이 숲에 서식한다. 그중 수백 마리가 동시에 날아오르는 "조류 비상" 장면은 오전 6시 전후로 가장 자주 목격된다. 사진 작가들 사이에서 "베트남 조류 사진 성지"로 불리는 이유다. 오전 8시 이후 단체 관광객이 밀려오면 이 고요함은 사라진다. 새벽 일찍 움직이는 것이 짜수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③ 메콩 수상 마을과 짜우독 - 짜수의 완벽한 짝

짜수만으로도 먼 길을 올 이유가 충분하지만 짜우독(Châu Đốc)과 함께 묶으면 여행의 밀도가 두 배가 된다.

짜우독은 메콩 강 지류 위에 떠 있는 수상 마을로 유명하다. 300가구 이상이 강 위에 지은 집에서 수상 어업으로 살아간다. 집 아래 물속에 물고기를 키우는 수중 어장을 내려다보며 사는 이 수상 마을은 베트남 어디서도 보기 힘든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 짜우독 시내에서 30분 거리의 빅드영 산(Núi Cám)은 해발 710m에서 메콩 델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다. 2박 3일 코스로 첫날 짜수 새벽 보트, 둘째 날 짜우독 수상 마을과 빅드영 산을 묶으면 메콩 서부를 가장 밀도 있게 경험하는 일정이 완성된다.

비가 올수록 초록은 더 깊어진다. 짜수 카주푸트 숲은 우기를 기다린다. 그 기다림의 끝에 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압도적인 자연이 열린다.



한 잔에 담긴 베트남의 여름 길거리 음료가 이야기하는 삶과 문화

세계 2위 커피 수출국 · 에그 커피 하노이 발명 · 사탕수수즙 노점 3,000여 개 · 심포 200종+ · 짜다 무료 제공 문화 · 코코넛 커피 SNS 1,200만 뷰 · 2026 글로벌 음료 트렌드 선도

베트남에서 더위를 이기는 방법은 단순하다. 앉아서 한 잔 마시는 것이다.

호치민의 6월 오후 2시. 기온 37°C. 좁은 골목 안 플라스틱 의자 위에 앉아 아이스 커피 한 잔을 홀짝이는 것 - 그것이 베트남인들의 더위 처방이다. 베트남은 세계 2위 커피 수출국이지만 음료 문화는 커피를 훨씬 넘어선다. 무료로 나오는 짜다(iced tea), 노점 기계로 즉석에서 짜내는 사탕수수즙, 과일을 얼음과 함께 갈아 만든 심포, 달걀 거품이 떠 있는 에그 커피까지 - 베트남의 음료는 각각 하나의 문화 이야기를 담고 있다.

Trà Đá 짜다 - 베트남의 공기 같은 음료

전국 / 식당·노점 무료 제공 | 무료~5,000동 (거의 항상 무료)

"짜다"는 베트남에서 공기처럼 존재한다. 식당에 앉으면 주문하지 않아도 먼저 나온다.

녹차를 우려 얼음을 넣은 것이 전부다. 재료도 단순하고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그런데 베트남인들이 하루에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가 짜다다. 하노이·호치민 어디서든 식당에 앉으면 웨이터가 아무 말 없이 짜다를 먼저 가져다 놓는다. 이것이 베트남 식문화의 "환영 인사"다. "물 대신 차가운 녹차를 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 문화는 더운 기후에 적응한 베트남 생활 방식의 표현이다. 짜다는 돈을 내고 사는 음료가 아니다 - 그것은 베트남인의 일상적 환대다.

Nước Mía 누역미아 - 사탕수수즙, 눈앞에서 짜준다

전국 / 남부에서 특히 인기 | 5,000~15,000동 (\$0.2~0.6)

길을 걷다 멈추게 만드는 소리가 있다. 사탕수수 줄기가 금속 롤러 사이로 들어가며 나는 "기이익" 소리다.



누역미아(Nước Mía)는 사탕수수를 기계로 즉석 압착해 만드는 생즙이다. 연두빛의 맑은 액체가 컵에 채워지고 금귤(tác) 한 조각을 짜 넣으면 완성된다. 자연 당도가 높아 설탕을 따로 넣지 않아도 달콤하다. 비타민C와 철분이 풍부하고 더위를 식히는 효과가 탁월해 베트남 전통 의학에서도 "열을 내리는 음료"로 쓰인다. 사탕수수즙은 베트남에서 가장 흔한 길거리 음료 중 하나로 노점상들이 눈앞에서 사탕수수 줄기를 기계로 압착해 바로 제공하며 금귤이나 파인애플 한 조각을 더해 자연스럽게 달콤하고 상쾌한 맛을 낸다. 호치민 벤타 시장 주변 노점에서 한 잔에 8,000동(약 300원). 뜨거운 오후 한 잔이면 피로가 풀린다.

Sinh Tố 심포 - 열대 과일 스무디, 베트남식 여름 비타민

전국 / 남부 과일 시장 주변 최다 | 20,000~40,000동 (\$0.8~1.6)

심포(Sinh Tố)는 베트남식 과일 스무디다. 서양 스무디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 - 달콤한 연유(condensed milk)가 들어간다.



심포는 열대 과일·얼음에 종종 달콤한 연유나 요거트를 넣어 만들며 서양 스무디보다 더 진하고 달지만 신선한 과일 맛이 가득하다. 아보카도 심포(심포 보)는 크리미하고 고소하며 두리안 심포는 진한 향과 달콤함이 폭발적이다. 망고·망고스틴·패션프루트·드래곤프루트 등 제철 과일이 바로 블렌더에 들어간다. 6월 지금이 망고스틴·두리안·람부타이 동시에 최성수기라 "심포 황금 시즌"이다. 호치민 1군 벤타 시장 인근 심포 가게들은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줄이 끊이지 않는다. 현지인 팁: 과일+연유+얼음 기본 조합에 "야오구르"(베트남 요거트)를 추가하면 새콤달콤함이 더해진다.

Cà Phê Trứng 카페 쫘 - 달걀 거품 커피, 하노이가 발명했다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주변 특화 | 35,000~55,000동 (\$1.4~2.2)

1940년대 하노이, 우유가 부족했다. 바텐더 응우옌 반 잠이 달걀노른자를 설탕과 함께 휘저어 커피 위에 얹었다. 에그 커피의 탄생이다.



에그 커피는 달걀노른자·설탕·연유·로부스타 커피로 만드는 베트남 음료로 1940년대 하노이 우유 부족 시기에 처음 만들어졌다. 노른자 거품이 커피 위에 두툼하게 쌓인 이 음료는 디저트와 음료의 경계에 있다.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 두 가지 버전이 있으며 뜨거운 버전은 커피 잔을 뜨거운 물에 담가 서빙한다. 하노이 구시가지 항지에이(Hàng Gai) 거리의 Cà Phê Trứng Giảng(장 에그 커피)이 원조다. 창업자의 아들이 지금도 같은 레시피로 운영 중이다. CNN·롤리플래닛·뉴욕타임즈가 모두 "하노이에서 꼭 마셔야 할 음료"로 꼽았다.

Cà Phê Cốt Dừa 카페 컷 쥐아 - 코코넛 커피, SNS가 세계에 알렸다

전국 / 호치민·다낭 카페 집중 | 45,000~65,000동 (\$1.8~2.6)

코코넛 커피는 베트남이 세계 음료 트렌드에 역수출한 대표 음료다. 틱톡·인스타그램에서 1,200만 뷰를 돌파하며 "세계가 주목하는 베트남 음료"로 부상했다.



베트남 커피 문화는 에그 커피·코코넛 커피·요거트 커피·소금 커피·박씨우·슬로우드립 아이스 커피 등 처음 방문하는 여행자를 놀라게 하는 독특한 형태로 진화했다. 코코넛 커피는 코코넛 밀크·코코넛 아이스크림·진한 로부스타 커피를 레이어로 쌓거나 블렌딩해 만든다. 코코넛의 달콤한 크리미함과 커피의 쓴맛이 만들어내는 조화가 핵심이다. 호치민 콩 카페(Cộng Cà Phê)가 이 음료를 전국적으로 유행시켰다. 지금은 전국 500개 이상 지점에서 판매 중이다. 런던·서울·뉴욕 콩 카페 해외점에서도 코코넛 커피는 베스트셀러 1위다. "베트남 여름 음료"가 글로벌 카페 트렌드를 만들고 있다.

▶ 지역별 음료 문화 - 하노이 vs 호치민 vs 중부

구분	하노이	호치민
커피 스타일	에그 커피(카페 쫘) 발상지 느리고 진한 핀 드립 문화	아이스 밀크 커피 (카페 쓰어 다) 빠르고 시원한 거리 커피
대표 길거리 음료	짜다(무료 제공) 썬어 쫘 (요거트 드링크) 라임 소다	심포(과일 스무디) 누역미아 (사탕수수즙) 코코넛 커피
카페 문화	골목 카페 헤리티지 카페 구시가지 계단 카페 문화	루프탑 카페 오토바이 카페 강변 카페 인스타 감성 카페

베트남의 음료는 그냥 목을 축이는 것이 아니다. 짜다의 무료 환대, 노점 사탕수수즙의 즉석 신선함, 에그 커피의 창의적 역사, 코코넛 커피의 글로벌 확산 - 한 잔 한 잔이 베트남의 기후·역사·문화를 담고 있다. 이번 여름 베트남을 방문한다면 에어컨 카페보다 좁은 골목 플라스틱 의자에 먼저 앉아보길 권한다. 거기서 마시는 짜다 한 잔이 베트남의 진짜 맛이다.

[출처: Anvui Travel · Make Your Asia · Sungetaway Travel · Barista Magazine · Feastio · Toronto Pho · Vietnam Local Guide (2025~2026.06)]



ONE SERVICE

베트남 진출, 원스톱 솔루션 원서비스로 빠르고 안전하게!

법인 설립부터 HR, 세무·회계까지 한 번에 해결!

- ✓ 법인 설립 & 비즈니스 컨설팅
 - 외투법인, 현지법인, 외투전환 설립
 - 사업자 등록, 법인 도장, 초기 세금 신고
- ✓ 세무·회계 관리
 - 월별 세금 신고 & 기장 대행
 - 연말 정산, 재무 보고서, 전자 세금계산서
- ✓ HR & 직원 관리 서비스
 - 직원 채용 & 급여 관리 (현지 & 한국어 가능 인력)
 - 노동허가서 & 사회보험, 아웃소싱 지원
- ✓ 비즈니스 컨설팅 & 행정 업무 대행
 - 공증, 번역 서비스 & 법률 준수 컨설팅
 - 공항 VIP 패스트트랙 (입국 \$18 / 출국 \$25)



원서비스는 다릅니다!

- ✓ 10년 이상의 베트남 법률·세무·HR 경험
- ✓ 한국 기업 맞춤형 컨설팅 & 신속한 대응
- ✓ 투명한 비용, 믿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상담 및 문의

전화: 08-3333-1004

이메일: simon@oneservice.group

주소: 65 Dang Nhu Mai, Phuong Thanh
My Loi, Thanh pho Thu Duc, HCMC

카카오: ONESERVICE1

